

보도시점 2025. 10. 15.(수) 12:00 배포 2025. 10. 14.(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리 2호기 원전 현장방문

-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합리적으로 섞어 사용하는 에너지 구성(믹스) 정책 강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5일 김성환 장관이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 현장(부산 기장군 소재)을 방문하여 원전 안전운영 체계와 계속운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전 방문은 올해(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되는 주무 부처 장관 현장 점검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합리적으로 섞어 사용하는 에너지 구성(믹스)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리 원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전으로 국내 안정적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해왔다. 고리 2호기는 1983년부터 2023년까지 가동 이후 현재는 계속운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 (계속운전) 운전허가기간 만료 원전에 대해 설비 수명·상태·개선계획 등 안전성을 평가해 운전허가기간 이후 계속운전하는 제도(전세계 허가만료원전 91%(258기)가 계속운전 시행중)

김성환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대응상황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다.

김성환 장관은 중대사고와 지진·침수 등 외부재해 대응계획, 사이버 보안 등에 관해 질의하면서 원전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 구성(믹스)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원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고리 2호기 현장방문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44-203-5320)
		담당자	서기관	김은성 (044-203-5321)



□ 개요

- 일 시 : 2025. 10. 15(수) 12:00~13:00 (60분)
- 장 소 : 한수원 고리본부(부산 기장군)
- 참석자
 - (기후부) 기후부 장관,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 (한수원)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 고리본부장 등
- 주요논의 : ▲원전 안전운영 체계 및 계속운전 준비상황 점검,
▲현장 설비 점검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세부 일정	비고
12:00	12:25	25'	• 고리본부 현안 보고 - 계속운전 추진 현황 및 계획 - 토의 및 마무리	본관 대회의실
12:25	13:00	35'	• 발전소 현장 시찰 * 중대사고대응설비, 수전설비, 주제어실 등	발전소 내